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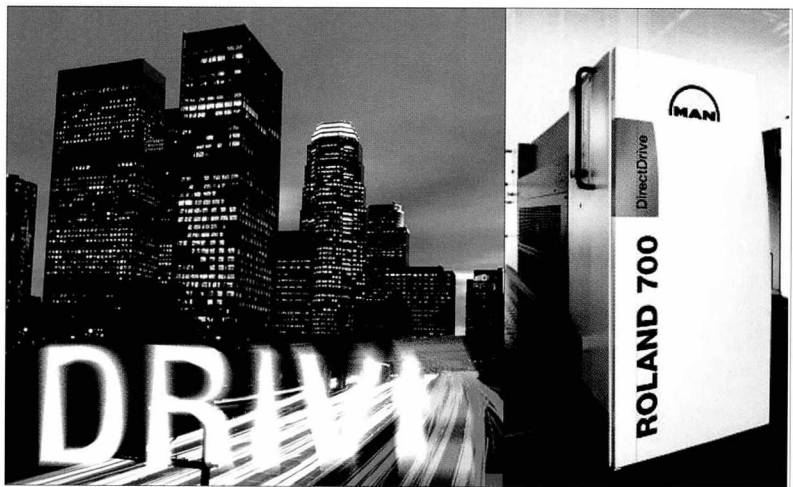
만로랜드 ROLAND 700 DirectDrive

## 양면인쇄 작업준비시간 대폭 감소

만로랜드사의 매엽 인쇄기에 직접 구동 방식을 도입한 ROLAND 700 DirectDrive은 각기 다른 생산 준비 공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산업적인 규모의 인쇄기 및 유니트가 많은 양면 인쇄기 사용자들이 생산 준비 시간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직접 구동 방식(Direct drive)은 실린더 저널(cylinder journal)에 탑재된 클러치를 떼고 고속 모터로 구동되는 플레이트 실린더의 구동 방식이다. 블랭킷 세척과 같은 작업 공정이 이뤄지는 동안 인쇄 유니트에서 판들이 교환됨으로써 생산 준비 시간을 현저히 감소시켜준다. ROLAND 700 DirectDrive은 인쇄판 교환이 블랭킷 세척이나 잉크 공급(inking-up)과 같은 다른 생산 준비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뒤에서 이뤄진다. 대형 양면기에서 브로셔, 새 언어판과 같은 작은 작업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더 큰 4/4 양면 제품의 다음 번호 매기기를 위해 인쇄 회사는 약 4분 정도 걸리는 블랭킷 세척만 하면 된다. 인쇄판은 여덟 판이든 열 두 판이든 상관없이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환된다.

잉크 교환이 필요할 때는 잉크 공급 장치와 블랭킷과 임프레션 실린더를 반드시 각기 다른 속도로 세척해야 한다. 잉크 공급 장치는 9000rph까지 고속 세척이 가능하지만 블랭킷과 임프레션 실린더는 더 느린 속도로 세척되어야 한다.



브러시 타입과 천 타입 세척 유니트는 약 600rph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ROLAND 700 DirectDrive의 플레이트 실린더 구동 장치는 빠른 속도로 잉크 공급 장치를 세척하고 이 시간 동안 인쇄기의 주 구동 장치는 블랭킷과 임프레션 실린더를 더 느린 속도로 세척한다. 지금까지 이것은 순차적으로 행해졌고 시간도 두 배나 걸리던 과정이었다.

ROLAND 700 DirectDrive은 또한 원주 방향 레지스터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쇄 시작은 99mm까지 조절 가능하다.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양면 작업에 있어 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쇄판은 특정 용지 포맷에 맞추어져 있지만 인쇄 시작 조절에 의해 비용이 덜 드는 다른 포맷을 사용할 수도 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